

전임교원 업적평가 95년부터

강의평가 시행, 신입교원은 재임용시 결과 반영

우리학교는 지난 28일부터 이번 학기 강의평가를 전반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의를 개설했던 모든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의평가제는 교수에서 제작한 강의평가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학생들이 직접 강의내용이나 담당교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강의 평가 분석 결과를 해당학과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통보되기 이전까지 교수가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의 평가 결과는 강의 평가

기분구조표의 공통문항 문항 4개항만 교수 업적평가 시 교육영역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교수 선택학목은 교수 각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강의 평가 결과는 신입교원의 재임용 심사 시 반영하게 되지만 93년 이전 임용교수들의 업적평가는 95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강의평가는 사실상 제도 도입처리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교수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강의평가자료가 교수 업적평가점수가 0점 처리되나 사실 상 이번 학년도에는 교수업적평가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93년 이전 전임교원에게는 교수 사료로서의 가치만을 가지게 된다. 운영체 수원캠퍼스 교무처장은 이번 강의 평가에 대해 아직 교수들이 강의평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하나 교수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강의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남지 않은 상황이며 제도 도입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업적평가제를 신임교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계속 검토 중이나 내년도

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될 강의평가를 교수들은 교수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계 계절학교 26일부터

전과과 BBS개설

공과대 전과공학과는 이번달 말 BBS(전자게시판)를 개설한다.

모텔 9개, 접속번호 9개로 개설되는 이 BBS는 전과과 PC실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LAN(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게 된다.

개설대상은 전과과 재학생과 대학원생, 교수들로 한정되며, 이미 개인 LD(고유번호)가 발급된 상태이다. 이 BBS는 동시에 9명까지 접속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시작된 학과장자 한이나 학과장자를 집에서 안아볼 수 있다.

동계 계절학교 26일부터

동계 계절학교가 2차에 걸쳐 서울캠퍼스 본과와 대학에서 실시된다.

1차 개설키간은 오는 26일부터 95년 1월 6일까지 2주간 개설되고 2차 기간은 95년 1월 16일부터 95년 1월 27일까지 2주간 개설된다.

국어, 한국어 등 공통교양 8개 과목과 문학의 이해, 인지와 교육 등 계열교양 과목, 문리학과는 계속 검토 중이나 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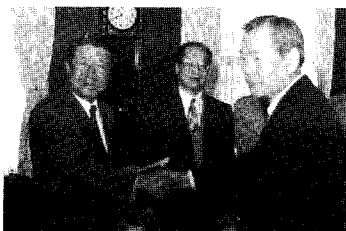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소속 캠퍼스 교무부에서 신청하면 되고 26, 27일 당일전 서울캠퍼스 경리과에 등록하여 26일 수강신청 절차를 할 수 있다.

대학장 수여

일본대 마쓰이 국제부장에 우리학교는 지난 11월 22일 일본 니혼대학의 마쓰이 마쓰이 국제부장에 대학장을 수여하였다.

총학 업무이월 진행

수원 준비위 총학 기구개편, 간부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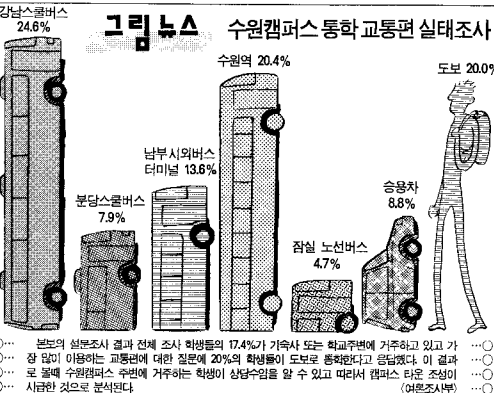


양진후원회(회장 윤종근)는 지난 2일 총장실에서 공영일 총장에게 장학금 4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후원회는 병대졸업생 고시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태원(병대 동문회장)등은 병대 졸업생 46명으로 구성된 이 후원회는 지난해 2월 결성된 것이다.

지난 11월25일 당선이 확정된 '2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기구를 개편하는 등 이원집권'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수원캠퍼스 차기 총학생회는

본리하여 구성하였다. 기존의 선전부는 홍보보실로 명칭변경되었으며 각급 학생회와의 전신



본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 학생들의 17.4%가 기차나 또는 학교주변에 거주하고 있고 가

장 담이 이동하는 교통편에 대한 질문에 20%의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

로 볼 때 수원캠퍼스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캠퍼스 인근에

사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진사부)

‘계열화반대 단식농성’ 중단

대체위 의견수렴위 일정 결정

‘학과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의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동대응위)는 지난 11월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공동대응위 기획조정위원회는 11월 22일 2차 회의에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11월 21일 2차 회의에서 대체위 의견수렴위 일정 결정에 합의했다. 대체위 의견수렴위는 11월 21일 2차 회의에서 단식농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10일간의 단식을 끝낸 뒤 ‘학과분쟁이 그동안 일어난 것’에 대해 4차 회의에서 대체위 의견수렴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대체위 의견수렴위는 11월 21일 2차 회의에서 단식농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10일간의 단식을 끝낸 뒤 ‘학과분쟁이 그동안 일어난 것’에 대해 4차 회의에서 대체위 의견수렴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대체위 의견수렴위는 11월 21일 2차 회의에서 단식농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10일간의 단식을 끝낸 뒤 ‘학과분쟁이 그동안 일어난 것’에 대해 4차 회의에서 대체위 의견수렴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도서관 I-D카드 신청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오는 16일까지 도서관 자료열람실에서 도서관카드 ID카드 발급신청서를 받는다. 발급신청 대상은 4학년을 제외한 전학생이며, 접수방법은 각 과대표가 도서관에서 신청을 공부해 수령하여 일괄 신청하면 된다.

완공을 위한 부실공사는 지양해야

▼도서관 없는 학교에 다닌다는 불명예를 빚기 위해 사전의 학생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완공시기와 공간문제에 모든 학생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개관 전부터 ‘동양대학’에 화려한 수식이 달리고는 도서관이 앞으로 그 수치를 잃을 수 있는 지를 걱정하고 있다. ▼같은 설계비율과 축박한 공사비율, 그리고 공간배치의 계속된 변경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중앙현관을 계단, 그리고 일부 통로를 제외한 바닥을 덮고 있는 장식재가 대표적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장식재가 바닥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그나마 소수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관 전부터 ‘동양대학’에 화려한 수식이 달리고는 도서관이 앞으로 그 수치를 잃을 수 있는 지를 걱정하고 있다. ▼같은 설계비율과 축박한 공사비율, 그리고 공간배치의 계속된 변경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중앙현관을 계단, 그리고 일부 통로를 제외한 바닥을 덮고 있는 장식재가 대표적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장식재가 바닥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그나마 소수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으로 비유된다. 그 비유가 도서관이 외부 홍보용 ‘전시물’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화려한 외관이나 규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에 보이지 않는 값진 사소한 것, 정성을 쏟고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이다. 도서관을 세워 하자고 있는 곳을 고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간도 재배치 검토를 거쳐 다시 시행하라는 있을 수 있다. 그 착오를 극복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동양대학이라는 명에 걸맞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류창주 기자)

수강신청 95년 등록기간중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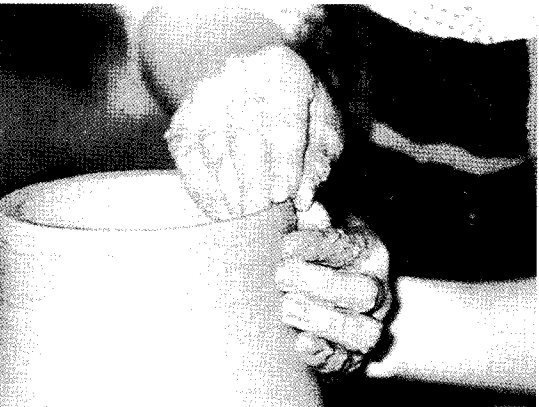
수원 전공과목 개편 지연으로

서울캠퍼스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정경대학원 전신실에서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한다. 새학기 개편된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한 예비 수강신청의 결과로 개편안이 결정되고 수강신청은 95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때 과에서 배부되는 종합학사표를 검토하여 예비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신청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설치가 대폭 간소해진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9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예년과는 달리 방학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수원캠퍼스의 경우 전공과정 개편작업에서 학과의 학장배분구조 편성이 마감을 겪어 전공과목의 교과목 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종합학사표의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편된 전공 및 교과과정개편은 모든 학년에 적용되는데 교과과목에 따르면, 방학중에 등록금 고지와 동시에 개편된 교과과정과 수강신청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각 학생에게 발송하여 재학생 수강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내년 2월달에 있을 등록기간중에,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중에 수강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말고사 일정은 서울 수원 본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이다.

이번호가 2학기 종간호입니다



“1년짜리 작품”

1천도 이상의 물로 작품을 구워내야만 탄생하는 도자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공의 존과 열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수 천개를 포기하려다도 최선의 하나를 만들기 위한 도공의 신념.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지막 손놀림...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장치를 없애고, 혼신의 힘을 기울인 과정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1년의 학생생활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작품 하나를 위해 혼을 불어넣는 도공처럼 정성과 열정으로 마무리를 성취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손끝에서 1년짜리 작품, 94년의 학생생활은 완성됩니다.

포항제철